26 의료기관 간호업무 종사자에서 발생한 유방암

1 개요

근로자 ○○○은 만 21세부터 약 11년 1개월간 □대학병원 병동 간호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, 만 33세 되던 해에 침윤성 유관암을 진단받았다.

2 작업환경

병동 간호는 대개 3교대로 24시간 환자 관리 및 돌봄이 수행되며, 야간 업무조는 22시30분부터 07시30분까지 근무하였다. 근로자는 임신, 출산, 육아 등으로 인한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약 9년 3개월의 근무기간중 월 평균 4~6회정도 야간 근무를 실시하였다.

3 해부학적 분류

- 기타암

4 유해인자

- 기타 작업환경 요인(그 외)

5 의학적 소견

특이 과거병력은 없었다. 흡연력은 없었으며,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다. 유방암의 가족력도 없었다. 초경은 만 14세였으며, 총 1회의 분만력을 갖고 있었다. 첫 아이의 출산은 31세였으며, 모유수유는 약 9개월간 실시하였다. 경구피임약 복용경험은 없었다.

6 고찰 및 결론

근로자의 상병과 관계있는 요인으로는 야간 교대근무가 추정되나, 외국의 연구결과 를 참고할 때, 야간 근무 노출 기간이 25년 미만으로 야간 근무가 상병발생에 미친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,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 다. 끝.